

# 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 29일까지 지역별 총 18명... 재정운영 투명성 제고 기대

전북도교육청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보장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공개모집 인원은 지역별로 구분해 총 18명이며, 모집기간은 1월 18일부터 29일까지이다. 선발된 위원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참여·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위원 공모신청 게시판에 신청하거나 전북교육청 예산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거나 전북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

해당자로서 간주하여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에 선발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분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아울러 수렴·집약된 의견의 협의와 예산편성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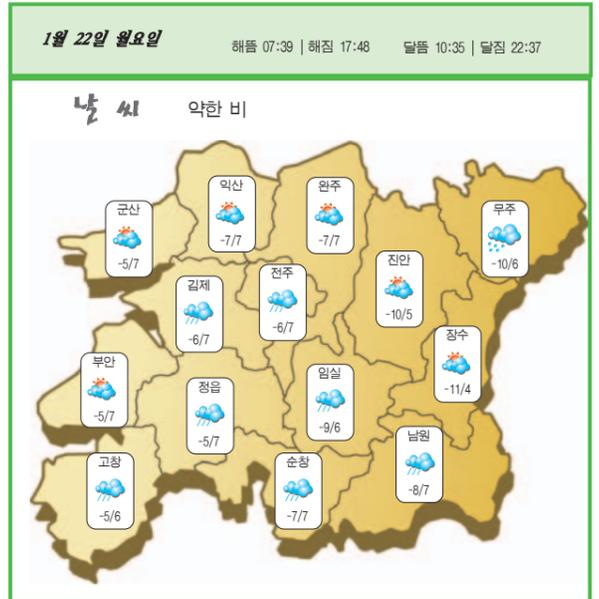
위원후보자 선정결과는 2월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지

역별 위원후보자로 선정되면 2월중 운영되는 '예산학교' 과정(4시간)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예산위원 위촉에서 배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063-239-357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은 19일 기존 정보검색실을 러닝커먼스 개념의 북카페로 시설,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여 개

## 전주교대 도서관 새단장 완료

**복합 문화공간 구축·개방 러닝커먼스 개념 북카페**

전주교육대학교 도서관(관장 김평)은 19일 기존 정보검색실을 러닝커먼스 개념의 북카페로 시설,

환경을 새롭게 구축하여 개방했다.

‘러닝커먼스 프라자’에는 검색 PC, 노트북 코너 등을 설치하고 교양잡지, 열람용 교과서를 비치하여 재학생들이 자유롭게 학습, 토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교대 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는 도서관이 정숙하기보다 즐거운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변화하여 재학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편안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교대 ‘러닝커먼스 프라자’는 제1도서관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기관 군산교육지원청 공개 모집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광순)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연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유관 기관·단체 등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2018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한다.

정관·사업자등록증 등에 방과후학교 관련 교육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산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기관), 개인 사업자가 신청 대상이 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하여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기관 선정은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 이호경 도공 전북본부장 취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이호경(53·사진) 신임 본부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의 최우선 약속인 안전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빈틈없는 유지관리를 통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해 예기치 못한 사태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혁신적인 사고로 고객만족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없앤다

### 아동친화도시 전주, 하얏길 교통사고 예방 사업 추진

세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 전주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얏길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전주시는 초등학교 어린이의 하얏길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2018년도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전주지역 50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에 나선 녹색어머니와 교통관련 자원봉사단체 회원 등 봉사자 100여명을 오는 25일까지 선발할 계획이다.

봉사자들은 학기 중 각자 배정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지도 등 안전지킴이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지속 추진하는 것은 각종 교통사고 통계 분석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을 중 하교시간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 취약지역 교통지도 및 통학로 순찰, 보행이 어려운 장애우 보행도우미 활동 등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을 전개해왔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올해도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해소로 학부모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전주가 어린이 안전 으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 도교육청,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결과 발표

전북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학교배정 결과를 1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일반고 학교 배정은 전주 23교 6,278명, 군산 6교 1,601명, 익산 7교 1,722명 등 총 36교 9,601명이며,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합격한 전주, 군산, 익산 지역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실시한 바 있다.

학교 배정 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성명, 생년월일 입력)하거나, 소속 중학교 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합격생들은 1월 22~26일 해당 학교 및 학교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등록금 납부 등 입학 등록을 해야 한다.

/김민근 기자



누가 뭐고 겨울은 순창의 겨울은 아름답습니다.

